

## 고령친화산업의 경제적 파급효과: 14개 부문을 중심으로

### Economic Propagation Effects of Selected Old-Age Friendly Industries

이건직 협성대학교 보건관리학과 조교수

고령사회는 고령자의 생물적 노화 및 사회·경제적 능력 저하로 발생한 노인인구의 신규 거대수요를 국가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전환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고령친화산업의 활성화는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 구조 형성, 산업클러스터를 통한 국가균형발전, 혁신형 중소기업 육성으로 인한 내수촉진과 고용창출, 아시아인의 체격과 정서의 반영에 따른 수출증대 등에 기여 외에도 고령자의 사람다운 삶 영위라는 경제 그 이상의 가치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되어지고 있다.

2002년 현재 요양, 의료복지기기, 정보, 문화/여가, 금융, 주택, 한방, 농업, 교통, 식품, 의약품, 장묘, 의류, 교육 등을 중심으로 한 14대 고령친화산업의 시장규모는 매출액기준으로 약 12.8조원(모태산업대비 2.2% 수준)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오는 2010년, 2020년의 시장규모는 각각 약 43.9조원(모태산업대비 4.7%)과 약 148.6조원(모태산업대비 10.0%)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고령친화산업 고용창출 효과는 2002년 현재 약 23만명에서 2010년에 약 45만명, 2020년에 약 69만명으로 각각 연평균 8.6%와 4.3%씩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 1. 서론

2005년 1월 21일에 대통령자문기구였던 고령화및미래사회위원회의 주관으로 제57회 국정과제회의에서 ‘고령친화산업 활성화 전략’이 보고되었다. 이는 정부가 고령친화산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활성화를 위한 비전, 목표 및 전략에 대해 대내외에 천명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 이후 고령친화산업진흥법(안)이 국회에 상정되었고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산하 저출산고령사회정책본부가 신설되었으며 고령친화산업팀이 설치되는 등 고령친화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공공부문의 토대가 마련되었다.

본 고의 목적은 2005년 대통령 보고에 따른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써 2005년 2월에 종료된 ‘고령친화산업 활성화 전략 연구’에 이어 고령친화성이 높은 산업의 추가 발굴을 목적으로 2006년 2월에 발간된 ‘고령친화산업 활성화 전략(II)’의 연구 결과를 종합적으로 소개함에 있다. 2005년의 1차 연구에서는 요양, 의료 및 복지기기, 정보, 여가 및 문화, 금융, 주택, 한방 및 농업 등 총 8대 산업부문을 포함하였으며, 2006년의 2차 연구에서는 교통, 식품, 의약품, 장묘, 의류 및 교육 등 6대 산업을 추가하여 총 14대 고령친화산업의 부문별로 분석된 시장규모의 추계와 고용창출 효과를 소개하고자 한다. 이와 함께 각 부문별로 도출된 전략품목을 제시하고 이들의 시장규모와 고용창출 효과도

언급하고자 한다.”

## 2. 14대 고령친화산업의 경제적 파급 효과

### 1) 고령친화산업의 시장규모

고령친화산업의 시장규모 추계에는 매출액을 기준으로 한 다양한 통계자료를 활용하였으며 이는 크게 두 가지 상이한 작업 과정을 거쳤다. 먼저 고령친화산업의 모태가 되는 산업의 2002년, 2010년 및 2020년의 시장규모를 추계하였으며 이를 근거로 고령소비자가 차지하는 소비규모를 추정하여 고령친화산업의 시장규모를 추계하였다. 모태산업의 시장규모의 추계의 경우 부문별로 이미 생산된 자료가 미흡한 경우가 적지 않았으며 특히 고령친화산업의 시장규모 추계의 경우는 각 고령친화산업부문의 분류기준이 기존의 생산물 중심이 아닌 소비자 중심에 따른 분류기준 차이로 인해 전면 새롭게 추계하였다. 이 경우 합계출산율을 1.18로 가정한 연령별 장래인구 추계결과를 활용하였다.

향후 경제 전반의 성장률은 저출산 고령화 현상을 고려하여 KDI가 분석한 잠재경제 성장률 변화를 토대로 각 산업부문별 전문 연구기관 및 협회 등에서 제시한 시장 성장률을 반영하였으며 특히 각 부문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에 의미를 두고 추계하였다. 이와 더불어 세계 시장의 성장률을 고려하였으며 전반적으로 세계 경제 또한 고령화로 인해 성장이 둔화될 것으로 예측하여 이를 반영하였다. 한편 고령친화산업의 시장규모 추계에 있어서는 전체 시장에서 고령소비자가 차지하는 비중을 중시하였는데 이는 각 부문별 특성에 입각하여 다양한 기준을 적용하였다. 특히, 고령친화산업의 시장규모 추계에 있어 전 부문별로 고려될 수 있는 가능성(고-중-저)중 저성장을 가정하는 보수적 입장에서 추계하였음을 밝혀 둔다.

<표 1>은 2005년도에 종료된 고령친화 8대 산업과 함께 2006년에 추가된 6대 산업을 포함한 총 14대 고령친화산업의 산업별 시장규모와 모태산업 대비 비중을 나타내고 있다. 2002년 현재 14대 고령친화산업의 매출액기준 시장규모는 약 12.8조원이며 이는 모태산업대비 2.2% 수준인 것으로 추정하였다. 여기서 모태산업이란 고령친화산업에 대한 조작적 정의에서 고령친화산업을 고령자, 예비고령자 및 주수발자의 생물적 노화 및 사회·경제적 능력저하로 인한 수요에 대처하기 위한 제품과 서비스를 공급하는 산업으로 보았기에 그 수요에 제한이 없는 근간이 되는 산업을 지칭하였다(고령화및미래사회위원회, 2005).

고령친화산업은 오는 2010년이 되며 시장규모가 약 43.9조원, 모태산업의 4.7% 수준으로 증가할 것으로 추정하였다. 또한 2020년에는

1) 보다 구체적인 전략품목의 내용과 각 산업별 또는 각 전략품목별 활성화를 위한 필요 지원정책에 대해서는 두 권의 연구보고서를 참조하기 바람.

약 148.6조원의 시장규모로 모태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 또한 10.0%에 이를 것으로 분석하였다.<sup>2)</sup>

모태산업의 경우 2002년의 시장규모는 2010년 및 2020년까지 각각 연평균 5.87%와 5.23%씩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였으며 동기간 고령친화산업은 각각 16.64%와 14.58%씩 성장할 것으로 추정하였다.

2002년 현재 모태산업 대비 시장규모가 가장 큰 고령친화산업으로는 요양과 장묘산업을 제외하고는 의약품산업(34.1%), 의료 및 복지

기기산업(33.8%), 한방산업(28.3%) 순으로 그 비중이 높았으며 이는 2020년에 이르러서도 변화가 없을 것으로 나타나 고령친화성이 높은 산업일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편, 모태산업 대비 비중을 기준으로 보았을 때 2002년에 비해 2020년경 가장 크게 확대될 산업으로는 정보, 농업, 교통산업 순으로 예측되었다.

시장규모측면에서 보았을 경우 2020년경 가장 큰 규모를 차지할 고령친화산업으로는 정보, 여가, 금융 및 의약품 산업일 것으로 전망되었다.

표 1. 고령친화산업의 시장규모 추정(모태산업대비)

(단위: 억원, %)

부문	2002년		2010년		2020년	
	매출액	모태산업대비비중	매출액	모태산업대비비중	매출액	모태산업대비비중
요양산업	129	100.0%	49,299	100.0%	93,661	100.0%
기기산업	7,008	33.8%	21,208	36.0%	66,544	39.8%
정보산업	2,446	0.1%	42,375	1.3%	396,732	7.5%
여가산업	24,387	5.4%	73,370	8.5%	263,941	15.5%
금융산업	10,408	1.5%	55,240	2.9%	185,241	5.8%
주택산업	5,871	1.0%	26,778	2.8%	75,045	4.9%
한방산업	10,188	28.3%	21,153	30.7%	46,738	31.2%
농업	3,383	1.0%	15,986	5.0%	29,564	10.0%
교통산업	8,761	0.9%	33,637	2.9%	94,841	7.3%
식품산업	8,664	2.5%	17,416	3.3%	41,687	4.5%
의약품산업	27,741 <sup>2)</sup>	34.1%	48,017	43.8%	113,436	66.7%
장묘산업	13,115	75.0%	20,127	81.8%	34,552	90.5%
의료산업	5,298	4.8%	11,412	6.7%	33,030	11.2%
교육산업	935 <sup>1)</sup>	0.2%	3,594	0.6%	10,957	1.3%
총계	128,334	2.2%	439,612	4.7%	1,485,969	10.0%

주: 1) 2001년도 기준임. 2) 2003년도 기준임.

2) 시장규모 추정에 있어 교통 및 교통산업은 2001년을, 의약품산업은 2003년을 기준으로 추정하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편의상 2002년을 기준으로 함께하였으므로 해석상 주의를 요함.

## 2) 고용창출 효과

고령친화산업의 고용 효과를 추정하기 위해서는 한국은행에서 산출한 산업연관표를 활용하였다. 연구당시 활용할 수 있었던 1990년, 1995년, 2000년 3종의 산업연관표에 나타난 세분류표(168부문표)를 기준으로 고령친화산업의 각 업종(산업)과 연결시켰다. 산업연관표의 분류와 고령친화산업의 업종이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는 경우 부분적인 조정작업을 거친후 1990년, 1995년, 2000년 추세를 지수함수 형태로 연장하여 2002, 2010년, 2020년의 취업유발효과를 추정하였다. 산업연관표에서 고용효과와 관련된 지표로 크게 취업계수, 산업내취업유발효과 및 전산업취업유발효과를 제공하는데 본 연구에서는 전산업취업유발효과를 활용하였다. 이는 해당 산업 부문에서 10억원을 생산할 때 산업 연관효과를 통해 전체 산업에서 유발하는 취업자수를 말한다.

전산업 취업유발효과를 중심으로 살펴본 고령친화산업 및 모태산업의 연간 고용창출 효과와 그 증가율이 <표 2>에 나타나 있다.

고령친화산업의 모태산업의 경우 2002년도

연간고용창출효과는 약 1,266만명으로 추정되며 이는 오는 2010년 및 2020년에는 기술변화 및 업종구조의 변화 등에 기인한 취업계수의 추세적 하락으로 각각 약 990만명과 약 715만명으로 이는 2002년부터 2010년까지 연평균 3.0%씩, 2010년부터 2020년까지 연평균 3.2%씩 감소할 것으로 추정하였다. 이에 반해 고령친화산업의 연간고용창출은 2002년 현재 약 23만명에서 2010년에 약 45만명, 2020년에 약 69만명으로 각각 연평균 8.6%와 4.3%씩 증가할 것으로 추정하였다. 저출산 고령화 등으로 인해 향후 고용창출이 전반적으로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 속에서 고령친화산업의 활성화는 실업난 해소에 있어서도 효과적인 대응책으로 분석되었다(그림 1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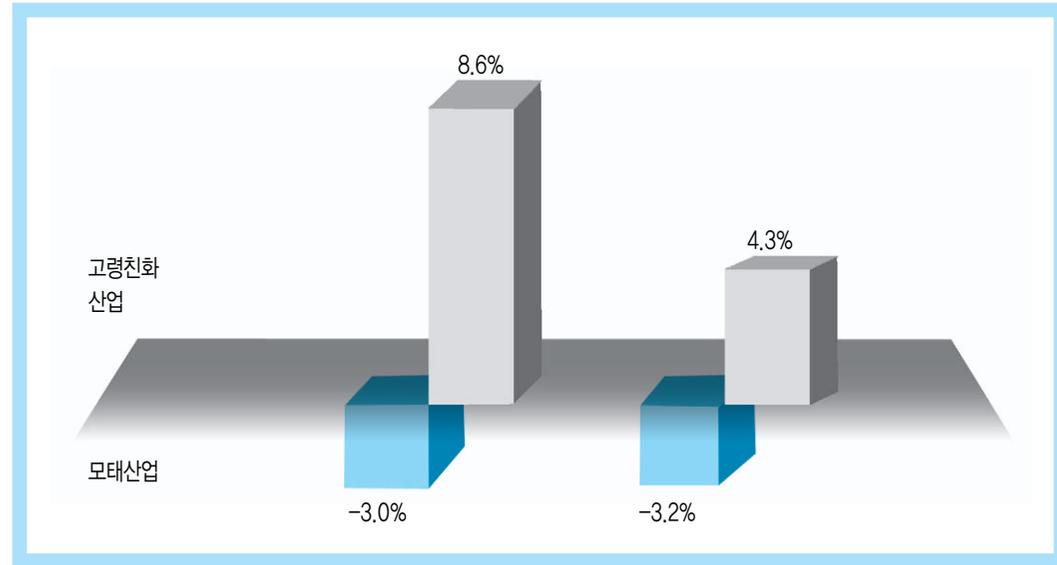
<표 3>은 모태산업과 고령친화산업의 각 부문별 전산업 취업유발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2010년에 14대 고령친화산업의 경우, 전산업 취업유발이 상대적으로 큰 산업으로는 여가산업(13.9만명), 금융산업(8.5만명), 농업(6.1만명) 순으로 추정되며 그 증가율은 요양산업(89.7%), 정보산업(27.1%), 주택산업(17.5%) 순으로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2020년에 있

표 2. 모태산업 및 고령친화산업의 연간고용창출 효과

(단위: 만명, %)

구분	2002년	2010년		2020년	
	취업자수	취업자수	'02~'10 연평균 증가율	취업자수	'10~'20 연평균 증가율
모태산업	1,266	990	△3.0	715	△3.2
고령친화산업	23	45	8.6	69	4.3

그림 1. 고령친화산업과 모태산업의 연평균 고용창출 증감률 비교



어서는 여가산업(29.8만명), 금융산업(10.0만명) 다음으로 정보산업(9.5만명)과 주택산업(7.4만명) 순으로 전산업에 파급시키는 고용유발이 클 것으로 전망되었다.

고령친화산업의 취업유발효과는 모태산업 대비 2002년, 2010년 및 2020년에 각각 1.9%, 4.6%, 9.6%로 크게 증가할 것으로 분석되었다.

### 3. 고령친화산업 전략품목의 경제적 파급효과

#### 1) 고령친화산업의 전략품목 및 선정기준

##### (1) 전략품목 선정기준

고령친화산업의 전략품목의 도출 기준은 국

제경쟁력, 시장매력도 및 공공성 등을 우선 선정기준으로 14대 부문 공히 적용하였다. 그 과정에서 부문별 특성을 감안하여 보다 세분된 기준이 적용되기도 하였다. 고령친화산업 자체가 새로이 분류된 측면도 있고 아직 가시화가 되지 않은 특성 등으로 인해 관련 자료를 취득 함에는 현실적 문제가 적지 않았다. 따라서 구체적이고 계량적인 자료분석 방법보다 업체, 학계 등의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 공급자 델파이조사 및 수요자 설문조사 등을 통하여 부문별 전략품목을 선정하였다.

특히, 공공 정책측면에서 관련 정부부처 담당자 및 대통령 자문위원회 정책전문가를 대상으로 정책조정회의를 통해 법제도 등 행정적 문제점 등에 관해 상호 의견수렴 과정을 거쳤다. 또한 민간측면에서 노인단체 및 관련 기업

표 3. 모태산업과 고령친화산업 부문별 취업유발효과

(단위: 명)

구분	전산업취업유발효과			
	2002	2010	2020	
모태 산업	요양	191	32,044	21,542
	기기	22,009	25,350	23,436
	정보	3,650,157	2,477,306	1,272,937
	여가	1,300,356	1,641,934	1,920,960
	금융	1,638,000	1,850,552	1,056,981
	주택	912,256	1,196,688	1,512,934
	한방	50,760	55,143	61,452
	농업	2,909,715	1,224,535	410,933
	교통	561,995 <sup>1)</sup>	216,049	58,674
	식품	252,221	137,941	65,022
	의약품	51,363 <sup>2)</sup>	22,053	8,163
	장모	28,766	12,229	4,237
	의류	157,495	92,683	47,958
	교육	1,122,009 <sup>1)</sup>	918,981	681,519
총계	12,657,291	9,903,489	7,146,747	
고령 친화 산업	요양	191	32,044	21,542
	기기	7,428	9,119	9,316
	정보	4,745	32,205	95,216
	여가	70,478	139,403	298,253
	금융	37,886	85,070	100,030
	주택	9,217	33,473	73,544
	한방	14,365	16,922	19,163
	농업	29,094	61,226	41,094
	교통	5,055 <sup>1)</sup>	6,256	4,268
	식품	6,403	4,511	2,918
	의약품	17,532 <sup>2)</sup>	9,651	5,445
	장모	21,574	10,003	3,835
	의류	7,518	6,197	5,384
	교육	2,739 <sup>1)</sup>	5,898	8,711
총계	231,488	446,081	680,008	
모태산업대비 비중	1.9%	4.6%	9.6%	

주: 1) 2001년도 기준임.  
2) 2003년도 기준임.

체 담당자를 대상으로 수차의 설명회를 통해 수요 파악 및 공급 능력 등 시장 여건에 관해 조사를 하였다.

(2) 고령친화산업별 전략품목

이상의 전략품목 선정 기준을 토대로 14대 부문에 걸쳐 총 105개의 유망품목을 도출하고 평가하여 34개의 고령친화 전략품목을 선정하였다(표 4 참조).

주요 전략품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요양산업에서는 재가요양서비스를, 기기산업에서는 재택 등의 건강정보시스템 등 3개 품목을, 정보산업에서는 홈케어 등 3개 품목을, 여가산업에서는 고령친화 휴양단지를, 금융산업에서는 역모기지제도 등 2개 품목을, 주택산

업에서는 고령자용 주택개조 등 2개 품목을, 한방산업에서는 한방보건관광 등 4개 품목을, 농업에서는 고령친화 귀농교육 등 3개 품목을 선정하였다. 교통산업에서는 저상버스와 고령자 감응 첨단신호기, 형광표지판 등 3개 품목을 선정하였으며 식품산업에서는 특수의료용도식품, 건강기능식품 등 2개 품목을 선정하였다. 의약품산업에서는 신경계와 순환계 용약과 대사성 의약품 등 3개 품목을, 장묘산업에서는 화장 및 납골용품과 웰엔딩 준비 및 체험교실, 매장 및 이장서비스 등 3개 품목을 선정하였으며 의류산업에서는 건강보조 스마트웨어, 건강개선용 레저스포츠웨어, 체형보정용 이너웨어 등 3개 품목을 전략화 시킬 필요성이 높다고 보았다. 마지막으로 교육산업에서는 일자리 교육 및 훈련 등 1개 품목을 선정하였다.

표 4. 고령친화 34개 전략품목

부문	전략 품목
요양	재가요양서비스
기기	재택/원격진단/진료및휴대형대형건강정보시스템, 한방의료기기, 간호지원및실내외이동지원시스템
정보	홈케어, 정보통신보조기기, 노인용컨텐츠개발
여가	고령친화휴양단지
금융	역모기지연금, 자산관리서비스
주택	고령자용주택개조, 실비고령자용임대주택
한방	한방보건관광, 향노화한방기능성식품, 노인용한방화장품, 노인성질환한약제제개발
농업	고령친화귀농교육, 전원형고령친화농업테마타운, 은퇴농장
교통	저상버스, 고령자 감응 첨단신호기, 형광표지판
식품	특수의료용도식품, 건강기능식품
의약품	신경계용약, 순환계용약, 대사성 의약품
장묘	화장 및 납골용품, 웰엔딩준비 및 체험교실, 매장 및 이장서비스
의류	건강보조 스마트웨어, 건강개선용 레저스포츠웨어, 체형보정용 이너웨어
교육	일자리 교육 및 훈련

2) 고령친화산업 전략품목의 경제적 파급효과

(1) 시장규모

<표 5>는 고령친화산업 34개 전략품목의 매출액 기준 시장규모를 나타내고 있다. 2002년 현재 고령친화산업대비 전략품목의 비중은 20.8%(약 2.7조원)에서 2010년에는 42.7%(약 18.8조원), 2020년에는 33.8%(약 50.2조원)로 성장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고령친화산업대비 34개 전략품목의 비중이

2010년에 비해 2020년에 줄어드는 이유는 현재 법제도 등에서 허가되지 않아 생산되지 못한 제품 및 서비스가 정부의 지원확대 흐름 속에서 2010년 이전에 허가될 것으로 가정하여 상대적으로 큰 규모의 시장이 급속히 형성될 것으로 기대하였기 때문이다. 그 이후는 정상적인 산업 성장단계를 밟을 것으로 보였다.

2002년 현재 14대 고령친화산업 중에서 34개 전략품목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산업은 의료 및 복지기기(52.2%), 의약품(51.7%), 식품(37.6%) 순으로 나타났으나 오는 2020년이 되면 요양(86.4%), 교통(70.3%), 한방(63.3%), 의

표 5. 고령친화 34개 전략품목의 시장규모

(단위: 억원, %)

부 문	2002년		2010년		2020년	
	매출액	친화산업 대비비중	매출액	친화산업 대비비중	매출액	친화산업 대비비중
요 양 산 업	0	0.0%	42,293	85.8%	80,887	86.4%
기 기 산 업	3,660	52.2%	12,413	58.5%	41,568	62.5%
정 보 산 업	36	1.5%	29,351	69.3%	68,549	17.3%
여 가 산 업	0	0.0%	3,628	4.9%	15,888	6.0%
금 융 산 업	0	0.0%	21,660	39.2%	83,747	45.2%
주 택 산 업	60	1.0%	9,283	34.7%	10,299	13.7%
한 방 산 업	2,818	27.7%	11,082	52.4%	29,576	63.3%
농 업	30	0.9%	880	5.5%	1,943	6.6%
교 통 산 업	0 <sup>1)</sup>	0.0%	17,538	52.1%	66,678	70.3%
식 품 산 업	3,257	37.6%	6,921	39.7%	17,756	42.6%
의 약 품 산 업	14,331 <sup>2)</sup>	51.7%	25,641	53.4%	63,411	55.9%
장 묘 산 업	1,667	12.7%	3,573	17.8%	9,267	26.8%
의 류 산 업	177	3.3%	808	7.1%	4,302	13.0%
교 육 산 업	669 <sup>1)</sup>	71.6%	2,525	70.3%	7,697	70.2%
총 계	26,705	20.8%	187,596	42.7%	501,568	33.8%

주: 1) 2001년도 기준임.  
2) 2003년도 기준임.

료 및 복지기기(62.5%), 의약품(55.9%) 등으로 전망되었다.

(2) 고용창출 효과

<표 6>은 고령친화 전략품목의 취업창출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2002년 현재 고령친화 전략품목을 생산함으로써 전 산업에 유발시킨 취업자수는 약 2만5천명으로 고령친화산업대비 10.5%를 나타내고 있으나 오는 2010년 및 2020년이 되었을 경우에는 각각 13만6천명과 14만4천명으로 고령친화산업대비 각각 30.0%

와 20.9% 수준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4. 결론 및 시사점

고령친화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타산업 부문과는 달리 정부의 지원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복지인프라와 관련된 정부 재정이 빈약한 국가가 초고속으로 고령사회로 향하는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 즉, 고령친화산업은 민간을 통해 정부의 책임에 해당하는 국민(특히, 고령자)의 건강권 및 생

존권을 보다 강화하기 위한 접근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는 산업지원 그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다.

선진국의 경우 고령친화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주요 역할로는, 신시장 창출 및 지원 강화, 관련된 기술인프라 정비와 확충, 전문인력육성, 표준화 개발 및 적절한 규제 및 성공사례(best practice) 확산 등으로 주어지고 있어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이에 대한 고려가 우선됨이 필요하다. 현재 고령친화산업진흥법(안)을 국회 상정하여 법적 기틀도 마련하고 있으며 고령소비자 보호를 위한 안전기준의 마련, 고령자 관련 제품의 표준화 및 품질관리를 위한 제도적 개선, R&D 투자 확대 및 세제 지원, 산·학·연·관 공동연구기반 마련,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 마련 및 지원, 성공사례의 개발 및 확산 등에 대한 지원체제도 마련될 계획에 있다.

이와 더불어 고령친화 상품에 대한 홍보를 위한 체험관의 설치, 운영과 함께 벤처기업의 활성화를 위해 시도되는 기술개발, 경영지원, 시장관로 개척 등을 한꺼번에 지원해 주는 원스탑 서비스에 대한 높은 요구의 수용과 함께 고령자의 신체적 특성을 고려한 광범위한 DB

자료 구축도 시급히 필요하다. 이는 고령친화 기업의 제품 및 서비스 생산을 위한 기초자료로 그 활용도가 높음에 비해 개별 기업이 생산하기에 그 한계가 지적되어온 만큼 관련 기업의 공통 활용을 전제로 한 공공적 접근이 필요하다. 또한 상품별 보편적 디자인 방안 및 각종 제작 기준 등이 조속히 마련되어 시장에 전해져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고령화 전개는 세계에서 가장 급속히 일어나고 있으면서도 중진국 수준의 경제적 능력에서 감내해야 한다는 점에서 그 어느 나라보다 민간의 역할이 커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고령화의 충격을 이야기할 때 가장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가 바로 베이비부머라는 커다란 연령집단이 은퇴를 시작한다는 현상이다. 이로 인한 사회 전반의 충격은 이제부터 시작이다. 미국이 2006년부터, 일본이 2007년부터 이들이 은퇴를 시작하며 우리는 2008년부터이다. 따라서 세계적으로 고령화로 인한 본격적인 충격흡수의 경험과 해법 제시는 거의 동시기에 일어난다고 볼 수 있다. 타국의 경험을 빌리기에는 우리에게겐 시간도 너무 없는 것 같다. 

표 6. 고령친화 34개 전략품목의 취업자수

(단위: 명)

구 분	전산업취업유발효과		
	2002	2010	2020
요양	0	27,490	18,604
기기	3,880	5,338	5,820
정보	70	22,307	16,452
여가	0	6,893	17,953
금융	0	33,356	45,223
주택	94	11,604	10,093
한방	3,973	8,866	12,126
농업	258	3,370	2,701
교통	0 <sup>1)</sup>	3,262	3,001
식품	2,407	1,793	1,243
의약품	9,057 <sup>2)</sup>	5,154	3,044
장묘	2,742	1,776	1,029
의류	251	439	701
교육	1,960 <sup>1)</sup>	4,144	6,119
총계	24,692	135,791	144,108
고령친화산업대비 비중	10.5%	30.0%	20.9%

주: 1) 2001년도 기준임.  
2) 2003년도 기준임.